

지역 소식통

고창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 위촉

고창군이 28일 군청에서 '고창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고창군의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다.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하여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년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경영진단,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경영실적 평가 제외의 대상기관의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사회적경제 단체 지역특화사업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8일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부안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

확보한 사업비는 3,600만원이며 세부사업은 사회적경제 교육, 창업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통합 워크숍, 스마트 스토어 교육 등이다.

부안군은 이번 지역특화사업의 목표를 부안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정하고,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선정

정읍시, 총 15억원 투입 영원면 북풍·남풍 마을 주거 안전·위생시설 등 정비

정읍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영원면 북풍·남풍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의견 소통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실 있는 준비과정을 통해 전북도의 1차 평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포함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북풍·남풍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위생시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영원면 북풍·남풍마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 또한 높아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마을안길과 기존담장 등이 협소하고 불량해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낮은 담장과 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화수 시장은 "나후된 지역 여건과 마을주민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아 사업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2050탄소중립 실천 식목일 나무심기

고창군이 28일 오후 고창읍 월곡리 산105번지 일원에서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이하여 제78회 식목일 행사를 열었다.

식목일은 광복이 되던 1945년에 제정되었고 이듬해부터 식목일 행사를 개최해 올해로 78회째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한 의미 있는 날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고창군청 공무원, 산림조합 조정수협회, 임업후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도로변 경관 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왕벚, 자작나무 2200주를 식재했다.

고창군은 올해 숲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장 목표포로 경제수조림사업 20ha, 탄소저감조림 15ha 등 총 55ha의 산림을 조성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위생시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영원면 북풍·남풍마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 또한 높아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마을안길과 기존담장 등이 협소하고 불량해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낮은 담장과 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화수 시장은 "나후된 지역 여건과 마을주민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아 사업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우체국, 지역사회 발전 위한 상호협력 약속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빈틈없는 복지 실현 '맞손'

정읍시(시장 이학수)와 정읍우체국(국장 정영한)이 정읍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정읍시와 정읍우체국은 지난 27일 우체국 플랫폼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복지 등기우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자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정영한 우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협력사업 참여 기반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우체국에 제공하고, 우체국 소포를 이용해 답례품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읍우체국은 우편 차량 등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홍보하고, 답례품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시는 집배원을 통해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가구 등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안내 정보를 담은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발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

부안군의회, 2023년도 읍·면 현황청취 진행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2023년도 주요 업무 및 특색 사업 추진 계획 점검을 위한 읍·면 현황청취 일정을 시작했다.

3월 24일 계화면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읍·면 현황청취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과 직원들의 수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각 읍면별 현안 및 민원사항을 포함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첫날 3월 24일 계화면과 주산면을 방문하여 계화면에서는 △계화면 승격 40주년 기념 기록관 조성 △계화 나눔 방앗간 운영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청취 하였으며, 이어 주산면에서는 △주산에서 하루 살아보기 △물, 땅, 사람의 주산면치 편찬 관련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2일차 오전에는 동진면과 백산면을 방문하여 △동진면 우리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동진 수미햇감자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 △백산면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등의 사업들에 대하여 내용을 청취하였다. 이어진 오후에는 하서면 △소제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 행안면 △논농밀 이모작 생산단지 확대, 보안면 △우동리 권역 약용특화단지 조성사업 △문화를 잇는 스토리텔링과 도보 여행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 받았다.

군 의회는 3월 28일 출포면·진서면·변산면, 3월 29일에는 부안읍·상서면을 방문 13개 읍면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청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인 만큼 각 읍면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해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을 청취하였다. 이어진 오후에는 하서면 △소제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 행안면 △논농밀 이모작 생산단지 확대, 보안면 △우동리 권역 약용특화단지 조성사업 △문화를 잇는 스토리텔링과 도보 여행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 받았다.

군 의회는 3월 28일 출포면·진서면·변산면, 3월 29일에는 부안읍·상서면을 방문 13개 읍면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청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인 만큼 각 읍면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해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안내소 개소

부안군은 28일 닭이봉 전망대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 의회 의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닭이봉 전망대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부안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시설물 노후화와 안전문제로 안전점검을 실행하여 구조를 보강하고, 부안을 대표하는 청자 모형의 의형과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정보를 담은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또한 지질공원·마실길 체험과 책을 읽으면 될 수 있는 휴게공간과 개방형 전망대로 격조있게 지질명소 및 위도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60기 신규 설치

급속히 증가하는 전기차량에 비해 충전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정읍시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읍시는 환경부가 공모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 인프라 구축 연계를 위해 지자체와 충전사업자가 공동으로 발굴한 브랜드에 대해 환경부가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

를 모두 갖추었다. 지질공원 안내소는 총 4층의 공간으로 지질공원해설사들이 배치되어 지질공원과 마실길 등 부안의 종합적인 생태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질공원·마실길 체험과 책을 읽으면 될 수 있는 휴게공간과 개방형 전망대로 격조있게 지질명소 및 위도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업비 14억3천만원(국고보조 5억3천만원, 민29억원)을 확보하고, 38개소에 60기의 급속 및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정읍시 제2청사 등 주차면 50면 이상 의무설치 대상 공공시설과 상대적으로 충전시설이 적은 면소재지 거점지역을 위주로 설치된다.

시는 지난 2월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 수요조사서를 진행하고, 대영채비(주)를 협업사업자로 선정해 공모에 참여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